

3년 만에 열리는 ‘별들의 축제’ 빛고을 달군다

도드람 2021-2022 V리그 올스타전 오는 2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 개최
올드스타와 만남 등 빅 이벤트 다채
홀리뱅 축하공연…티켓 예매는 20일



‘별들의 축제’ 도드람 2021-2022 V리그 올스타전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광주에서 프로배구 올스타전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리그 올스타전 개최도 2018-2019시즌 대전 올스타전 이후 3년 만이다. V리그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19-2020, 2020-2021시즌 올스타전을 열지 않았다. 가장 최근 열린 V리그 올스타전은 2019년 1월 20일에 치른 2018-2019시즌 대전 경기다.

3년 만에 돌아온 이번 올스타전은 참가하는 팬과 선수 모두가 올스타라는 의미의 ‘WE, ALL★STARS’의 슬로건으로 준비됐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경기로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먼저 올스타전 경기는 세트당 15점씩 총 3세트로 이뤄진다. 1세트는 여자부, 3세트는 남자부로 구성됐으며 2세트에서는 K-스타와 V-스타 두 팀의 남녀 혼성 경기가 진행된다.

광주·전남 출신 배구 스타들도 직접 볼 수 있다. 남자부에서는 광주전자공고 출신 서재



김희진



김주향



신영석



서재덕



나경복



염혜선



엘리자벳



이현

덕(한국전력), 순천제일고 출신 나경복(우리카드)이, 여자부에서는 광주체고 출신 김주향(IBK기업은행), 목포여상 출신 염혜선(KGC인삼공사)이 올스타에 포함됐다.

스타들의 이벤트도 풍성하다. 올스타 선수들의 초등학교 유소년팀 방문이 예정돼 있다.

올스타 선수들은 22일 유소년 배구교실이 운영되는 페퍼스타디움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한다. 학교를 찾은 선수들은 학생들 몰래 락커룸 및 배구 시설들을 새로 단장하고 선물 패키지를 전달 등 배구 꿈나무들에게 서프라이즈를 선사할 예정이다.

올드스타들과의 만남도 기대를 모은다. 1976몬트리올 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과 2020도쿄올림픽 대표팀들의 만남이다. ‘코트 위의 여우’ 세터 유경화, ‘날으는 작은 새’ 조혜정 등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해 국내 구기종목 사상 첫 동메달을 획득했던 대표팀 선수

7명이 광주를 찾는다.

23일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소원을 말해봐’ 이벤트도 열린다.

팬들의 소원을 사전 접수해 현장에서 선수들이 들어주는 ‘소원을 말해봐!’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한국배구연맹 SNS를 통해 총 2,658건의 소원이 접수됐다.

올스타전 출전 선수들은 팬들이 지어준 별명이 담긴 유니폼을 착용한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5일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4,237건의 올스타 선수 네이밍이 공모돼 팬 투표 1위를 차지한 김희진의 ‘곰돌희’, 전역 후 코트로 복귀한 서재덕의 ‘돌아온 덕큐리’와 같은 유쾌한 별명들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2021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댄스 퍼포먼스 그룹 ‘홀리뱅’의 올스타전 축하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됐다.

세트마다 올스타전만의 특별한 시상도 준비됐다.

1세트 테크니컬 타임 때는 올스타 팬 투표 1위 시상식이 있다. 남자부에선 신영석(한국전력), 여자부에선 역대 최다 득표수 전체 1위를 차지한 김희진(IBK기업은행)이 수상한다.

1세트 종료 후에는 지난 시즌 우승팀인 대한항공과 GS칼텍스의 후원으로 초·중등학생 베스트6 선수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되며 3세트 경기 종료 후, 우승팀과 남녀 세리머 시상 및 남녀 MVP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스파이크 서브 킥&퀸 콘테스트의 운영방식도 달라진다.

V-리그 올스타전만의 오랜 전통이자 시그니처 이벤트인 스파이크 서브 킥&퀸 콘테스트는 1세트 종료 후 여자부, 2세트 종료 후 남자부 콘테스트가 진행된다. 기존에 모든 선수가 참여해 결승 진출자를 뽑는 방식에서 좀 더 색

다른 볼거리를 위해 일대일 토너먼트 형식으로 변경해 진행된다.

스파이크 서브 킥 최고기록은 2013-2014시즌 외국인 선수 카리나(IBK기업은행)가 세운 100km다. 장장 8년째 이어져 온 기록을 깨기 위해 올 시즌 서브 2위를 달리는 모마(GS칼텍스)를 비롯해 김희진, 박정아(한국도로공사), 이소영(KGC인삼공사), 이한비(페퍼저축은행) 등 각 팀을 대표하는 강서버들이 나선다.

스파이크 서브 킥은 올 시즌 서브 1위의 케이트(KB손해보험)와 강서브의 대명사 러셀(삼성화재), 그리고 토종 라이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스파이크 서브의 절대 강자 문성민(현대캐피탈)이 2016-2017시즌 세운 123km의 기록에 도전할 예정이다.

올스타전 티켓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KOVO 통합티켓 판매처에서 예매할 수 있다. /조혜원 기자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권순우가 홀거 루네를 상대로 경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권순우, 호주오픈 테니스 4전 5기 첫 승

4세트 루네 다리 부상 기회

3시간 5분 만에 승리 확정

권순우(54위·당진시청)가 상대 선수의 부상에 힘입어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7,500만 호주달러·약 644억원)에서 생애 첫 승리를 거뒀다.

권순우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단식 1회전에서 폴세트 접전 끝에 홀거 루네(99위·덴마크)에게 3-2(3-6 6-4 3-6 6-3 6-2)로 이겼다.

이로써 권순우는 호주오픈 본선 첫 승리 사냥에 성공했다.

권순우는 앞서 2018년과 2020년, 2021년 세 차례 이 대회 본선에 나서 모두 1회전 탈락했다. 2019년에는 예선에서 탈락했다. 5년간 4전 5기 도전을 펼친 셈이다.

권순우가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2회전에 오른 것은 2020년 US오픈(2회전 탈락), 지난해 프랑스 오픈(3회전 탈락),

윔블던(2회전 탈락)에 이어 4번째다.

권순우는 테니스 사포발로프(14위·캐나다)-리슬로 제레(51위·세르비아) 경기 승자와 2회전을 치른다.

권순우는 이날 1세트 자신의 첫 서브 게임에서 한 포인트로 따내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허용하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5번째 서브 게임도 브레이크 당해 세트를 내줬다.

2세트에서 권순우는 루네의 두 번째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해내며 흐름을 뒤집었다. 3번째 서브 게임은 내줬지만, 곧바로 다음 루네의 서브 게임을 가져오며 기세를 유지했고, 결국 세트 점수 1-1을 만들었다.

하지만 승부의 흐름은 3세트에 다시 바뀌었다.

루네가 힘의 우위를 이어간 가운데 이전까지 권순우가 우세하던 네트 플레이에서도 더 많은 성공률을 보이며 세트를 가져갔다.

권순우는 4세트 첫 서브 게임을 루네에게 내줘 패색이 짙어졌으나, 이때 행운이 찾아

왔다.

루네가 다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7번째 게임에 들어서는 권순우의 서브를 받아치지도 못했다.

권순우는 결국 4세트를 가져오며 승부를 마지막 세트로 몰아갔다.

권순우는 통증에 계속 흔들린 루네의 세 번째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승리를 예고했다.

흐름을 이어간 권순우는 3시간 5분만에 승리를 확정했다.

2003년생, 열아홉 살로 프로 3년 차인 루네는 권순우보다 여섯 살 어린데다 랭킹에서도 45계단 뒤지지만 2019년 프랑스오픈 주니어에서 우승한 기대주다.

지난해 US오픈 1회전에서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를 상대로 선전을 펼친 끝에 1-3으로 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당시 경기에서도 루네는 3세트부터 다리 근육에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허율 U-23대표팀 훈련 합류

광주FC 허율(FW·21)이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 국내 소집 훈련에 합류했다.

광주FC 관계자는 17일 “기존 훈련선수 성남FC 조성준가 부상으로 인해 소집해제되면서 허율이 대체발탁돼 지난 16일부터 훈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194cm의 큰 키를 가진 허율은 포스트플레이와 헤더, 침착한 슈팅으로 득점을 노리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다.

장신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스피드와 골 결정력까지 갖췄다.



허율

광주FC U-18 금호고 출신 허율은 2019년 고교 득점왕을 거뒀으며 지난 2020년 광주FC에 입단했다. 지난 시즌은 18경기 2골1도움을 기록했다.

허율은 오는 29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혜원 기자

월드컵 최종예선 유럽파 6명 합류
김민재·황의조·이재성·황인범 등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7·8차전에 나선 축구 국가대표팀에 유럽파 6명이 가세한다. 그러나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참가는 보류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7일 김민재(페네르바체), 정우영(알사드), 정우영(프라이부르크), 황인범(무빈 카잔), 이재성(마인츠), 황의조(보르도)를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레바논(27일), 시리아전(2월 1일)에 참가할 국가대표팀에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6명은 파울루 벤투 감독 지휘 아래 대표팀이 전지훈련 중인 터키로 오는 24일 입국할 예정이다.

한국 여자수구, 2년 반 만에 국제무대 도전

남부대 강조민지 등 10명 선발

한국 여자수구 대표팀이 2년 6개월 만에 다시 꾸려져 국제무대 출전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17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여자수구 대표팀은 오는 9월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국제대회 출전을 목표로 이날부터 인천선수촌에서 훈련에 들어간다.

연맹은 여자수구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여자수구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치러 10명의 선수를 선발했다.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말 이룬 교육 등을 마쳤다.

연맹은 대표팀의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정서한 수구 전문 지도자도 선임했다. 우리나라 여자수구 대표팀이 꾸려진 것은 2019년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후 2년

반 만이다.

우리나라는 개최국 자격으로 광주 세계대회에서 출전하게 돼 사상 처음으로 여자수구 대표팀을 구성한 바 있다. 당시 겨우 한 달 반 정도 훈련 후 세계대회에 나선 한국 선수들은 헝가리와 첫 경기에서 0-64라는 기록적인 패배를 당하는 등 세계적 강호들을 상대로 5전 전패를 기록하고서 16개국 중 최하위로 대회를 마쳤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던 선수들의 모습은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2022년도 여자 수구 국가대표 선수단 명단

▲지도자=정서한(대한수영연맹)

▲선수=배아린(서현중), 김예진(경성대), 김재이(경기체고), 문소혜(경북대), 홍서연(서울체고), 강조민지(남부대), 정현지, 윤마니(이상 선화여중), 박은지, 김유리(이상 무소속) /연합뉴스